

보도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일시	<b>2021. 11. 4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
작 성 과	신성장산업유치과
담 당	과장 김연주, 바이오헬스케어팀장 임대화, 담당 김희정(032-453-7654)

## **인천경제청,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송도5공구 지식산업제조업용지 매매계약 체결** **바이오의약부문 기업 유치 위한 3,100평 규모 부지, 지난 6월 공모통해 사업자 확정** **mRNA 백신,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등 유전자 의약품에 특화된 복합제조시설 건립** **시설연면적 20,525㎡ 규모로 '22.상반기 착공, 23.하반기 준공 목표**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(B) 지식산업제조업용지 1필지(송도동 218-3, 10,279㎡)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. 이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6월 해당 부지에 바이오의약분야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자 공개모집에 따른 토지공급 계약이다.
-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기 공개모집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, 회사는 최근 mRNA 백신·바이러스벡터 백신 등 유전자 기반 차세대 의약기술이 부상하며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, 해당 부지에 유전자 의약품 특화 생산시설을 건립하여 급증하는 글로벌 생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.
-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백신,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등 유전자 기술 기반 의약품과 유전자 의약품 원재료에 대한 복합생산, 유전자 전달 플랫폼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. 이를 위해 연면적 약 20,525㎡ 규모의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을 2022년 상반기 착공,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이다.

- 송도국제도시는 주요 입주기업들이 항체의약품 역량에 더해 감염병 백신·치료제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엘포젠(DNA 백신 연구개발 및 생산), 싸토리우스(백신 원부자재 공급) 등 국내외 주요기업들이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‘글로벌 백신 허브’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
-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여개의 항체의약품 생산 허가를 통해 입증된 글로벌 수준의 생산기술과 주요 제약사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송도에 차세대 백신·치료제 복합제조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송도의 ‘글로벌 백신 허브’ 성장을 가속화할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.
-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“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‘K-글로벌 백신허브화’를 가장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도시”라며, “송도가 우리나라 바이오의약 분야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우수기업 유치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## 참고

## 사업부지 정보

### □ 부지정보

토지구분	면적	허용용도	건폐율	용적율	높이
Ki10-2 (송도동 218-3)	10,279m <sup>2</sup>	공장, 지식산업센터 등	50% 이하	200% 이하	60m 이하

### □ 위 치 도

